익산시, 2018 전국체전 홍보 나서

일정 10월 12~18일 잠정 확정… 시내버스 안내방송·랩핑 홍보 등 통해 시민 홍보

2018년 전국체전 주개최지인 익산시는 FIFA U-20월드컵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마무리되고 체전 일정이 잠정 확정됨에 따라 시민참여와 붐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는 내년 체전 일정이 10월 12~18일까지 확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체전을 알리기 위해 관내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외부 랩핑홍보 등을 통한 대 시민 홍보를 본격화했다.

올해 12월까지 지역 모든 시내버스에서는 시청 정류장을 지나갈 때마다 전국체전 개최 안내방송이 나온다.

또한 시내버스 39대에 전국체전 랩핑 홍보를 실시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은 "시내버스를 활용한 안내방송과 랩핑 홍보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전국체전 붐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양대 체전을 치루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 '시민서포터즈'와 '익산사랑운동추진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전국체전 홍보는 물론 친절, 교통질서 등 손님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는 시내버스 39대에 전국체전 랩핑 홍보를 실시한다.

군산시 화장시설 윤달 특별 연장 운영

군산시는 윤달기간(6월24일~7월22일) 동안 유골 화장예약의 폭증에 따른 원활한 화장장 운영과 유족 불편 해소를 위해 평상시 오전9시~오후 6시까지였던 화장시설(승화원)의 이용시간을 오전 7시~오후 7시까지로 3시간 연장 운영한다.

예전부터 윤달에는 조상의 묘를 단장하거나 개장하는 관습이 있어 왔고, 또한 핵가족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조상 묘를 관리할 자손이 줄어들면서 조상 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군산시의 경우에도 윤달을 맞아 접수된 개장유골 화장건수가 평소 20배인 약950여 건에 달하고 있다. /군산=장 현 기자

익산농협, 충전식분무기 전달식

익산농협은 조합원들의 높아지는 농업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일손절감을 위해 11일 오전 10시경 익산농협 미곡처리장에서 소형농기계보조사업 시연회 및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700여명이 참석했고 소형농기계 시연행사 및 사용방법설명과 함께 금년도 보조품목인 충전식분무기를 전달했다.

해마다 실시되는 익산농협의 소형농기계 보조사업은 2016년 동력살분무기 보조사업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금년도에는 충전식 분무기로 품목을 선정해 1,140여명이 신청, 50%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화물칸 덮개 떼버리고 운항한 선박 적발

군산해양, A해운 소속대표 B씨 선박안전법 위반혐의 검찰에 불구속 송치

고의로 화물선 안전설비를 제거한 뒤 운송에 나선 선박이 검거됐다.

11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3,405t급 화물선의 적재량을 늘리고 빠르게 화물을 옮기기 위해 화물칸 덮개를 제거한 뒤 운항한 A해운 소속대표 B씨(45)를 선박안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안전상의 이유로 선박의 건조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은 이후 구조배치와 설비를 개조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선박 검사를 받은 후 화물 선적 및 하역하는 과정의 시간 단축을 위해 화물칸 덮개를 제거한 뒤 화물을 운송했다.

바다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일 경우 순간적으로 화물칸에 바닷물이 들이닥칠 수 있어 이를 막아 선박 복원성을 유지시키는 덮개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제 지난 14년과 15년에 제주와 부산에서 화물칸 덮개가 없이 운항하던 선박이 화물칸으로 들어찬 바닷물 때문에 균형을 잃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경은 대형 화물선의 안전설비와 화물 고정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대형사고의 시초는 쉽게 무시해버리는 안전수칙에서 시작된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종사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단속과 현장 계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검사 후 허가 없이 구조와 설비를 개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산=장 현 기자

선박에 설치돼 있어야 할 화물칸 덮개가 모두 떼어진 채 육상에 야적되어 있다.

군산대, 다문화학과 학술 세미나 개최

군산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박사과정)는 최근 무주에서 '제1회 다문화학과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학업 및 연구성과에 대한 집중 논의를 하였다.

지난해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다문화 관련 박사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군산대학교는 깊이 있는 융복합적 강의와 토론수업으로 다문화 관련 고급 인재 양성에 힘써 왔다.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호남지역 다문화 문제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의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미나는 박시균 교수(학과장)를 포함한 교수 및 박사과정 학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교육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연구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한국어/국어 교육 실태조사 ▲이중언어 사용자의 한국어 단순모음 발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다문화 이해교육이 다문화 인식 개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등 다섯 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군산=장 현 기자

'신나는 항만체험교실' 큰 호응

군산시, 초·중생에 항만 시설 견학·현장 체험 제공

군산시에서 실시한 '어린이와 함께하는 항만 GO! 신나는 항만체험교실'이 큰 호응 속에 마무리 되었다.

신나는 항만체험교실은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군산해수청 해양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총 10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관내 초, 중학생 450여명에게 항만 시설 견학과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군산항 제5부두 시설과 무역선을 가까이에서 보고,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하여 해상교통지원시스템 운영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군산항 운영에 대한 동영상 시청과 설명을 통해 항구도시 군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자부심을 갖는 기회를 가졌으며, 해양오염 방제활동 체험을 통해서는 바다 환경의 중요성과 바다지킴이들의 활동상황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친절한 시설 안내와 현장감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참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시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신청자 쇄도

군산시와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국 시군 최초로 추진하는 어린이 행복 부모학교가 7월 100명 교육생 모집에 380명이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전략 중 하나로 지난 4월 개교한 군산시 어린이행복 부모학교는 '부모교육 8시간, 어린이 행복 80년'을 모토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가족 행복을 위해 실생활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습위주의 감정코칭 교육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장경익 복지관광국장은 "현재는 1회 최대 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95%를 넘고 부모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 '우리 가족들의 토닥토닥 여행 이야기' 운영

군산시는 2017년 어린이·어른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군산시 평생교육과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가족들의 토닥토닥 여행 이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가족들의 토닥토닥 여행 이야기는 제한된 시간, 장소로 인한 가족 소통의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고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체험 지도를 가지고 군산 지역을 돌아다니며 역사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들을 하며 소통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 현재 45가족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은 심리치료, 진로감사, 역사체험, 홈패밀리 체험 등의 필수체험과 차문화예절, 향교체험, 공예체험, 가족영상제작, 숲체험 등 선택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까지 7개 이상의 체험미션을 완수하면 영화관람권(롯데시네마), 공연관람권(군산예술의전당)이 가족들에게 주어진다. /군산=장 현 기자